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조은주¹, 박정훈^{2*}, 임경민³

¹고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영산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³동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The Convergent effect of Nurses'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Eun-Joo Jo¹, Jung-Hoon Park^{2*}, Kyoung-Min Lim³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sin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Youngsan University

³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Dong ju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B시 소재 K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학생 117명의 설문문을 수집하여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의 차이는 학년과 학과선택 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둘째, 간호사이미지 및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으로 나타났고, 간호사이미지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이나 교육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교수·학생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진로지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융복합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design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nurses'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career identity. For this purpose, the study made a questionnaire survey of 117 nursing students attending at K college located B city.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program.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nursing students' career identity on grade and motivation of entrance. Second, there were correlations between nurses' image and nursing students' career identity and also betwee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Third, nursing students' career identity was influenced by their relationship satisfac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which are sub-factors of major satisfaction, but nurses' image did not influenced their career identity. Therefore it is needed to provide nursing students with educational and interventive programs that help their better their relationship satisfaction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continuous attention and guidance are necessary to facilitate communication and career guidance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Key Words : career identity, convergence, nurses' image,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Jung-Hoon Park(nbusisi@nate.com)

Received July 31, 2019

Accepted October 20, 2019

Revised September 5, 2019

Published October 28,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과에 진학하여 간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간호대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자기 확신 정도는 향후 간호업무수행이나 직업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1]. 이처럼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정도를 진로정체감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한 면밀한 탐색과 준비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공분야를 선택하게 되면 대학 입학 후 전공 부적응을 비롯한 취업과 진로문제를 고민할 수 있다. 특히 간호학과 학생들은 대학 재학 내내 진로결정과 취업방향에 대해 고심하는 일반적인 대학생들과는 달리, 입학과 동시에 진로결정이 이루어지고 졸업과 동시에 전공분야인 간호사로서의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른 학과 학생들에 비하여 진로와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고민하는 시간이 적으며 이로 인하여 진로행동 준비 및 진로정체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

진로정체감에 대한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현장 적응 실패 등에 따라 조기 이직하는 수가 많아지고, 임상에서는 이로 인해 간호인력 수급 차질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시행되었다[3]. 최근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하더라도 그 문제는 심각하다. 보건의료노조가 2018년 한해 동안 36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호사 이직률은 평균 15.55%로써 간호사를 제외한 직원의 이직률 6.67%의 2.3배로 나타났으며, 이직한 간호사 중 1년차 신규간호사가 37.15%, 2년차는 16.96%, 3년차는 12.42%를 차지했다. 전체 이직 간호사 중 1~3년차 간호사가 전체의 66.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높으면, 간호직에 대한 뚜렷하고 안정된 진로준비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반면에 간호인으로서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갖추지 못한 채 업무에 임하게 된다면, 낮은 직업적 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를 갖기 쉽다[1]. 또한 명확하지 못한 진로정체감은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현장에 대한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진로정체감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4].

바람직한 간호사이미지의 정립은 간호가 전문직으로 향상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 되어야 할 과제이다. 사회 일반인들의 간호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간호교육이나 간호실무에 있어서 간호사란 직업에 대한 위상과 역할에 그릇된 인식과 혼돈을 주게 되고, 간호사 자신의 직

업에 대한 소신, 자존감, 자신감에 영향을 미쳐 업무수행과 간호사로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5]. 특히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간호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6]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에 대한 이미지를 올바르게 형성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간호교육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7].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증진되며[8], 진로정체감 확립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10]. 따라서 진로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간호사 이미지를 높이는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계획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속한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이며[11],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졸업 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간호사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바른 생각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방해가 되고 자신의 직업에 대한 회의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2]. 이와 관련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에 따른 진로정체감에 대한 선행연구[9]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고 나타났다.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에 따른 각각 진로정체감을 확인했을 때 각각의 변수에 따른 선행 연구를 통해 이들 간 관계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9,10,13-15]. 그러나 이처럼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난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를 동시에 고려한 융복합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며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B시 소재 K 대학의 간호학과 재학생들로서,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 크기를 중간크기인 .20로 두어 산출하며 예측요인을 9개로 두어 산출하였을 때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표본의 크기는 108명이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120명을 선정하였고 부적합한 응답자 3명을 제외하고 총 117명을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대상자를 만나 연구를 하는 목적과 연구방법, 그리고 설문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후에 서면동의를 받고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공하고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즉시 회수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설문지 앞에 설명문과 연구 참여 동의서를 첨부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연구대상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익명성과 비밀보장, 예견되는 잠재적 위험 등을 설명하였고 연구자의 연락처와 이름을 기술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문 작성 후에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로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6문항, 간호사이미지 27문항, 전공만족도 18문항, 진로정체감 18문항으로 총 6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1 간호사이미지 측정도구

간호사이미지의 측정은 Yang[16]이 개발하고 Lee 등[17]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통적 이미지 12문항, 사회적 이미지 6문항, 전문적 이미지

6문항, 개인적 이미지 3문항,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부정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Lee 등[17]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2.3.2 전공만족도 측정도구

전공만족도의 측정은 Ha 등[11]이 작성한 34개문항의 학과 만족 도구를 Lee[18]가 전공만족관련 18문항 선택한 전공만족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만족 6문항, 인식만족 6문항, 교과만족 3문항, 교수 학생 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18]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2.3.3 진로정체감 측정도구

진로정체감의 측정은 Holland[19]가 개발한 MVS(My Vocation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Identity Scale)를 Kim[20]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이며, 부정문항은 역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다.

2.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방법은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및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은 여성이 93.2%(109명), 학년은 2학년과 4학년이 동일하게 각각 25.6%(30명), 학과선택 동기는 취업이 잘되어서 33.3%(39명)와 적성과 취미를 고려해서가 32.5%(38명)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상태는 중이 82.9%(97명), 건강상태는 상이 48.7%(57명), 종교는 기독교가 66.7%(78명)로 가장 많았다. 아래 Table 1과 같다.

3.2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정도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정도는 평균평점이 5점 만점

에 4.08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영역 중 전문적 이미지가 4.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적 이미지가 3.5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4.0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 중 인식만족이 4.3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계만족이 2.7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정도는 4점 만점에 평균평점이 2.54점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아래 Table 2와 같다.

3.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의 차이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는 학년과 학과선택 동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 결과 학년별로는 1학년이 3학년 학생보다 진로정체감 정도가 높았으며, 학과선택 동기에서는 적성과 취미를 고려해서 학과를 선택한 학생이 취업이 잘되어서 학과를 선택한 학생보다 진로정체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17)

Variables	Categories	n(%)	Career identity		
			Mean±S.D.	t/F	scheffe's
Sex	Male	8(6.8)	2.46±.42	-0.381	
	Female	109(93.2)	2.54±.60		
Grade	1 ^a	29(24.8)	2.72±.49	2.879*	a>c
	2 ^b	30(25.7)	2.62±.81		
	3 ^c	28(23.9)	2.29±.44		
	4 ^d	30(25.6)	2.50±.47		
Motivation of entrance	Based on score ^a	13(11.1)	2.59±1.04	2.832*	b>c
	Aptitude and hobby ^b	38(32.5)	2.74±.51		
	Easy employment ^c	39(33.3)	2.33±.48		
	Recommendation of parents and teacher ^d	19(16.2)	2.44±.55		
	Etc. ^e	8(6.9)	2.73±.27		
Economic status	High	7(6.0)	2.73±.72	0.440	
	Medium	97(82.9)	2.53±.54		
	Low	13(11.1)	2.48±.84		
Health status	High	57(48.7)	2.63±.67	1.554	
	Medium	50(42.8)	2.43±.47		
	Low	10(8.5)	2.55±.57		
Religion	Christianity	78(66.7)	2.62±.53	2.310	
	No Religion	37(31.6)	2.37±.69		
	Etc.	2(1.7)	2.44±.23		

*p< .05

Table 2. The level of nurses' image,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n=117)

Variables	Item No.	Mean±S.D.	Range	Average Mean±S.D.	Range
Nurses' image	27	110.31±14.16	27-135	4.08±.52	1-5
Traditional image	12	50.41±6.05	12-60	4.20±.50	1-5
Social image	6	22.78±3.49	6-30	3.79±.58	1-5
Professional image	6	26.50±6.86	6-30	4.41±1.14	1-5
Personal image	3	10.61±2.82	3-15	3.53±.94	1-5
Major satisfaction	18	72.42±10.89	18-90	4.02±.60	1-5
General satisfaction	6	23.48±4.56	6-30	3.91±.76	1-5
Acknowledge satisfaction	6	26.38±3.41	6-30	4.39±.56	1-5
Curriculum satisfaction	3	11.25±4.32	3-15	3.75±1.44	1-5
Relation satisfaction	3	11.29±2.51	3-15	2.78±.76	1-5
Career identity	18	45.76±10.65	18-72	2.54±.59	1-4

3.4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의 관계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와 진로정체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하위요인에서는 전통적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사이미지의 하위요인 중 전통적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는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만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중간정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인식만족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Table 3과 같다.

3.5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진로정체감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학년, 학과선택 동기, 간호사이미지와 그 하위요인인 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그리고 전공만족도와 그 하위요인인 관계만족, 일반만족, 인식만족에 대하여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년, 학과선택 동기는 더미변수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유무를 확인한 결과 모델 1(VIF 1.000~1.000), 모델 2(VIF 1.038~3.956), 모델 3(VIF 1.158~4.190) 모두 VIF 값이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rubin Watson 값을 구한

Table 3. Correlation among nurses' image,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n=117)

Variables	Career identity
	r
Nurse's image	.211*
Traditional image	.208*
Social image	.286**
Professional image	.037
Personal image	.164
Major satisfaction	.421***
General satisfaction	.529***
Acknowledge satisfaction	.265**
Curriculum satisfaction	.092
Relation satisfaction	.898***

* $p < .05$, ** $p < .01$, *** $p < .001$

결과 2.180으로 나타나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 학과선택 동기를 투입한 모델 1의 설명력은 7.7% ($F=5.765, p<.01$)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학년 및 학과선택 동기 모두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이미지를 투입한 모델 2의 설명력은 15.7% ($F=5.299, p<.001$)로 유의하였으며, 모델 1에 비해서 8.0% 증가된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모델 2에서는 학년 및 학과선택 동기뿐만 아니라 간호사이미지의 하위 요인인 사회적 이미지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50, p<.01$). 전공만족도를 투입한 모델 3의 설명력은 80.9% ($F=55.159, p<.001$)로, 모델 2에 비해서 65.2% 증가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모델 3에서는 전공만족도의 하위 요인인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만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beta=.675, p<.001$)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Table 4와 같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정도는 평균평점이 4.08점(척도범위: 1-5)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Ham 등[21]의 연구에서 3.71점, Lee 등[22]

의 연구에서의 3.89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하위영역에서는 전문적 이미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통적 이미지, 사회적 이미지, 개인적 이미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Ham 등[2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간호대학생은 간호사에 대한 전문적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개인적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간호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의사의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동등한 입장에서 의사와 함께 일하고 능동적으로 환자 간호를 수행하는 사회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마련과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정도는 평균평점 4.02점(척도범위: 1-5)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 전학년을 대상으로 측정한 Jang[23]의 연구에서는 3.89점, 남자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Lim 등[24]의 연구에서의 3.90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과만을 별도로 하지 않고 간호학과를 포함한 여러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25]의 연구에서 3.59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는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과선택 동기에서 적성과 취미를 고려해서 진학한 학생 비율이 높은 것이 주요 요인으로 사료된다. 4개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인식만족이 4.3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만족이 3.91점, 교과만족이 3.75점, 관계만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career identity

(n=117)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VIF	β	t	VIF	β	t	VIF
Constant		33.207***			2.537*			2.410*	
Grade	.254	2.083*	1.000	.308	2.592*	1.038	.038	0.636	1.158
Motivation of entrance	.307	2.725**	1.000	.318	2.932**	1.018	.036	0.631	1.217
Nurse's image				-.190	-0.983	3.956	-.124	-1.348	3.991
Traditional image				.163	0.940	2.954	.100	1.177	3.135
Social image				.350	2.683**	2.253	.113	1.729	2.495
Major satisfaction							-.036	-0.483	4.190
General satisfaction							.086	1.753	2.985
Acknowledge satisfaction							-.098	-1.523	2.565
Relation satisfaction							.675	16.667***	1.569
R ²	.093			.194			.824		
Adj. R ²	.077			.157			.809		
F	5.765**			5.299***			55.159***		

* $p<.05$, ** $p<.01$, *** $p<.001$

*Dummy: Motivation of entrance: 1= Aptitude and hobby, 0= Based on score, Easy employment,

Recommendation of parents and teacher, etc

Grade: 1= 1, 0= 2, 3, 4

족이 2.78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26]의 연구와 일치 하였다. 학과 인지도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인식만족이 가장 높은 것은 간호대학생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직업으로서의 간호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남자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Lim 등[24]의 연구에서는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차이로 보여지며,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간호학과 진학동기가 본인의 의지로 한 경우가 훨씬 더 높고 전공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검토 후에 선택하였으므로 전공의 내용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도인 일반만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정도는 평균평점 2.54점(척도범위: 1-4)으로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Seong 등[2]의 연구결과 2.59점, Jung 등[27]의 연구결과 2.65점과 유사하였다.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뚜렷하고 안정된 진로준비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며, 명확한 진로정체감을 갖추지 못한 채 간호업무에 임하게 되면 직업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높은 이직의도를 갖기 쉽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졸업 후 간호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더 확고한 진로정체감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는 학년($F=2.879, p<.05$)과 학과선택 동기($F=2.832,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는 1학년이 3학년 학생보다 진로정체감 정도가 높았다. 하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Seong 등[2]의 연구에서는 2학년이 1학년 보다 진로정체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일반 4년제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28]의 연구결과에서도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진로정체감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를 보인 것은 학과선택 동기에서 취입이 잘 되어서로 응답한 학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사료 된다. 적성과 취미 보다는 취입이 잘 될 것 같아서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학년이 거듭될수록 광범위한 전공 관련 교육이 오히려 부담감으로 작용해 직업영역에서의 자아정체감인 진로정체감의 정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학과선택 동기에서 적성과 취미를 고려해서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이 취입이 잘되어서 학과를 선택한 학생보다 진로

정체감 정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Kim[29]의 연구결과와 유사 하였다. 이는 학과를 선택할 때 자기 확신이 강하고 동기가 명확한 대상자가 역시 직업 선택에서도 높은 자기 확신을 갖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와 진로정체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211, p<.05$). 즉,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Ha[10]의 연구결과($r=.382, p<.001$)와 일치하였다. 간호사 이미지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전통적 이미지와 사회적 이미지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았다. 이는 백의의 천사, 희생과 봉사 정신, 환자에 대한 배려 등의 긍정적인 전통적 이미지를 높게 인식하고, 또한 간호사의 지적수준, 사회적 지위, 독자적 환자간호 수행 등의 사회적 이미지를 높게 인식하는 간호대학생일수록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정도를 나타내는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스스로가 인식하는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인식개선 프로그램 마련과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421, p<.001$). 즉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Jung 등[27]의 연구결과($r=.428, p<.001$) 및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15]의 연구결과($r=.352, p<.001$)와 일치하였다.

하위요인에서는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이 가장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으로 나타났고, 전체 설명력은 80.9%이었다. 하지만 간호사 이미지는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 하위요인별로 영향요인을 연구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지만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9,27,29,30].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학생간의 상호 신뢰할 수 있

는 관계 구축을 위한 일대일 상담 강화 등의 노력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마련을 통하여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교수-학생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진로지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고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인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교수-학생간의 상호 신뢰구축 전략을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진로정체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는 일개지역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 및 간호학생들의 실습 전후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Cho & G. Y. Lee. (2006).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2), 163-173.
- [2] J. Seong, S. Bang & S. Y. Kim. (2012).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Identit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Holistic Health Science*, 2(2), 29-38.
- [3] Y. H. Kwon & J. N. Kim. (2002). The Effect of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3(2), 216-229.
- [4] K. N. Kwon & E. H. Choi. (2010). Factors Affecting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4(1), 19-28.
- [5] H. Kang. (2001). A Survey on Public Nurses Image at a Local City. *Journal of Nursing Science*, 6(1), 109-124.
- [6] K. M. Lim & E. J. Jo. (2016). Influence of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556-566.
DOI: 10.5762/KAIS.2016.17.4.556
- [7] E. Hong. (2017). Convergence Study of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and Satisfaction of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0), 85-93.
DOI: 10.15207/JKCS.2017.8.10.085
- [8] J. A. Lee. (2004).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3), 325-334.
- [9] Y. O. Yang & S. Lee. (2012). The 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4(2), 979-989.
- [10] J. Y. Ha. (2012). Image of Nurses and Career Identity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Health&Nursing*, 24(2), 23-30.
- [11] H. S. Ha & K. H. Kim.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12] E. West, D. N. Barron & R. Reeves. (2005). Overcoming the barriers to patient-centred care: time, tools and training. *Journal of Clinical Nursing* 14(4), 435-443.
DOI: 10.1111/j.1365-2702.2004.01091.x
- [13] I. O. Moon & S. Y. Lee. (2015). Factors Influencing on Nurse's Image and Career Identity of High-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Job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7(1), 11-24.
- [14] M. W. Kim & J. M. Park. (2017). Path Analysis among Variables influencing on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0), 347-362.
DOI: 10.22251/jlcci.2017.17.10.347
- [15] I. Y. Cho. (2014).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The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937-2945.
DOI: 10.5762/KAIS.2014.15.5.2937
- [16] I. S. Yang. (1998).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4(2), 289-306.
- [17] S. H. Lee, S. Y. Kim & J. A. Kim. (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0(2), 219-231.
- [18] D. J. Lee.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19] J. L. Holland. (1985). *Making vocational choices: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ies and work environments*.
- [20] B. W. Kim.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1] Y. S. Ham, H. S. Kim, I. S. Cho & J. Y. Lim. (2011). Affecting factors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7(3), 536-544. DOI: 10.5977/jkasne.2011.17.3.536
- [22] M. Lee & H. Jeon. (2019).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in the Convergence Er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5), 55-64.
- [23] T. J. Jang. (2015).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24] K. M. Lim, H. Y. Kim & G. J. Park. (2017). The Influence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8(10), 423-431. DOI: 10.5762/KAIS.2017.18.10.423
- [25] H. M. Lee. (2017).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call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26] K. H. Lee. (2019). Convergence between Ego-Resilience, Major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3), 297-306.
- [27] J. S. Jung, M. J. Jeong & I. Y. Yoo. (2014).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 27-36. DOI: 10.5977/JKASNE.2014.20.1.27
- [28] S. K. Lee. (2006). Korean College Students' Vocational Identity -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and Career-related Variables - .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19(1), 141-154.
- [29] N. K. Kim(2012).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Identity of Students in Nursing*. Master dissertation. Aju University, Suwon.
- [30] M..R. Lee & M. J. Kim. (2018).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Korea Academy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9(6), 197-208.

조 은 주(Eun-Joo J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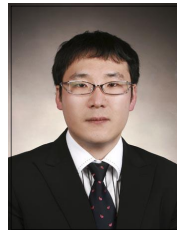
[장학원]



- 2000년 8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보건학석사)
- 2004년 8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보건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학, 국제보건
- E-Mail : 112059@kosin.ac.kr

박 정 훈(Jung-Hoon Park)

[장학원]



- 2011년 8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보건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영산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병원관리, 병원회계, 의료경영
- E-Mail : nbusisi@nate.com

임 경 민(kyoung-Min Lim)

[장학원]



- 2008년 9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보건학석사)
- 2012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보건학박사)
- 2019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7년 4월 ~ 현재 : 동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학, 의료경영
- E-Mail : sky10403@hanmail.net